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말씀: 요14:1-3

사람의 특징: 중요한 것도 자주 잊어버린다. 목사의 책무 중 하나는 반복해서 일깨워주는 것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대 교리는 구원 교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가 재림 교리
신약성경 총 218장, 재림 318회, 신약성경 1장마다 재림이 1.5회 정도 있음을 뜻함.

재림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전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

구원받지 못한 성도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재림이 가장 중요하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재림, 직접 20회 언급하심. 마태복음 23장 37-39절, 24-25장,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사도 바울 히브리서 9장 28절을 포함해서 50여 회에 걸쳐 재림 언급(히9:27-28)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계22:20

신약시대에 살다보니 초림 사건들 - 그분의 십자가, 피, 부활, 은혜 등 - 에 중점을 두는 경향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덟 배나 더 많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왜 재림이 필요한가? 징조는 무엇인가?

요14:1-3의 배경

13-17장은 전날 밤 오후 6시에서 반 12시까지 6시간 기록, 13장 1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2-17절: 친히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서로 섬겨야 함을 보여 줌(막10:45)

18-30절: 배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심

31-35절: 34-35,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이다. 33절을 설명하고.

36-38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오지 못한다. 나중에 따라온다.”

제자들의 근심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큼, 3년 반을 모신 분이 어디도 가는데 그곳을 모름

‘그런데 가시기 전에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부활한다’(마16:21).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된다.

요14:1-3 설명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16:5-6, 22).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아직도 이들은 주님이 고난당한 뒤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모름(눅24:21).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창조, 구원, 부활, 재림의 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 모두를 받아들일 장소가 있다. 걱정 마라. 사실이다.

3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이것이 결혼에 대한 것인지 잘 알아듣지 못함.

요한은 후에 바울의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되고 재림을 담은 계시록을 기록함(90년

경). 그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요13-17장의 귀중한 말씀을 기록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알 수 있다.

a. 정혼: 신랑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급하고 정혼 언약을 맺는다.b.

그 뒤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할 곳을 마련한다. c.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 d.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고 드디어 한 몸이 된다.

a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통해 신부와 정혼(초림).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승천).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공중 강림, 휴거). 그리고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치르고 신부와 함께 나타난다(지상

강림).

요점: 처소가 마련되면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야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계

19:7)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서 온 우주 공간에 이를 알리면서 신부를 공개할 수 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16-17).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벧후1:3-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딤후2:11-13). 보상을 고대한다(딤후4:6-8).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재림의 전조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다(구약의 경우 대략 1년).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다. 특징: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 때를 분별할 수 있다.

마16:1-3,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다. 붉고 흐리니 날씨가 굵다. 하늘의 모습 분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담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망쳐놓았다.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아담이 망친 왕국을 둘째 아담을 통해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통해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히 이사야 이후의 대언서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날이 곧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의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 했으나 이들은 끝내 거부하고 밧우리 주님의 예언(마23:37-39), 이들의 거절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함. 마26:28의 언약,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가야 함. 행1:6-8: 왕국은 이제 연기 되었다. 교회 시대, 9-11: 그 끝에 다시 온다. 어디로? 올리브 산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살아야 한다.

A70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타이투스에게 의해 멸절됨.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됨(신28:64-67). 성전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소망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던 그들을 살려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신다(겔37:11-14).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 재림의 시계에서 11시 55분이 된 것이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왔다. 11시 55분을 알려준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1967년의 6일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구 시가지를 탈환하였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가자(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행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남서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길이 약 50km, 폭 5-8km에 걸쳐 가늘고 길게 뻗은 지역이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와 함께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은 21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7000-8000여 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지 잠정자치원 칙에 합의해 1994년 5월부터 팔레스타인들의 자치가 시작된 곳, 유대인 철수

계속해서 싸운다. 2014년 7월 8일부터 싸움이 시작되어 벌써 약 2,000명이 사망하였다. 아이들도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결국 아말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재림이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왜 이런 전투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전을 지으려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의 싸움 아브라함 이후 온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에서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슌12:1-3).

결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 산 자들에게는 휴거,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곧 오신다. 성경대로 오신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난다(계21:3-5). 이 소망을 품고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자.